



서른다섯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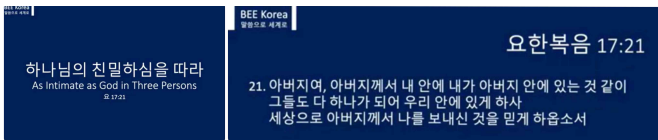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2021 BEE Korea 주제 선포]

2020년 연초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각 개인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닥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씀 공부도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사람 간 접촉도 자제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람 간 친밀함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바로 종식되지 않고 빨라야 2021년 말이나 아니면 몇 년 더 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에서 말하듯이 온전한 친밀하심을 형성하십니다. 그러한 친밀함을 따라가 보자는 것이 올해 표어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일 먼저 친밀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명기 28:59, 61에서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59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61절)”라고 했고, 바로 그 앞 구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58절)”이라고 말함으로 극심한 재앙과 질병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때가 지금보다 더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날 인간은 타락했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21년에는 친밀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숙고 끝에 표어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As Intimate as God in Three Persons)”로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더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올해의 성구인 요한복음 17:21상(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러기에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친밀감을 위한 분야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 팬데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쳤지만, 인간 간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BEE 회원의 경우 크게 네 종류의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과 BEE 공동체,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이웃과 선교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해진 것이 친밀함을 위한 7영역(말씀, 기도, 순종, 가정, BEE 공동체, 이웃, 선교지)입니다.

분야		필수
1 나 님	말씀	암송하기(로마서 8장, 매월 4절씩)
	기도	개인 기도 노트 쓰기 기도 테이블 별 기도 노트 작성
	순종	경건의 시간(OT) 적용하기
2 사 람	가정	주 1회 가족원(부모, 자녀, 형제) 안부전화, 문자 보내기
	BEE 공동체	기도모임 참석하기 (참석을 자율 선정하여 지키기)
	이웃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전도하기
	선교지	각 테이블 선교사와 월 2회이상 소통하기

표 1. 친밀함을 위한 필수 실천 사항

운영 위원회에서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증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분야마다 하나의 필수 사항과 회원 각자가 선택해서 추구할 수 있는 선택 사항 목록을 정리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표 1은 필수 실천 사항입니다. 물론 이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많은 다른 실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 1의 사항들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실천 사항들일 것입니다. 이 사항들만 매일 잘 실천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조금씩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BEE 공동체에서, 이웃과 그리고 선교지와 의 친밀감도 증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 과목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장인 12과의 끝에 그 과목에서 배운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라는 권면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을 가장 자주 방해하는 것은 커다란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겨워해야 할 싸움은 날이면 날마다 항상 꾸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결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개 서서히 한 번에 조금씩 죽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만둘 수 있거나, 또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심이 꼭 필요한 사역을 다음 주까지 미룰 수 있거나, 또는 깨어진 관계는 나중에라도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의 깊게 보호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진일보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글쓴이 조문상 선교사, BEE Korea 사무총장]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 소식

-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As Intimate as God in Three Persons)”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요17:21상)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귀를 통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2021년 1월 7일(목)-2월 25일(목), 2021 BMT(BEE Missionary Training) 8주간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 2021년 겨울,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BEE 오는 수요일’은 3월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BEE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읽고 다시 옵니다. 축복합니다!

